

ECONOMY

장년 일자리 확대…광주시 ‘빛고을50+’ 힘찬 출발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콘진원, 애니 2200억 수출 상담
프랑스 암시 필름마켓 성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암시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콘텐츠 마켓 '2025 암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MIFA)'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 22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K-애니메이션 대표 17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총 322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1억6200만 달러(2200억 원)의 수출 상담액을 기록했다. 콘진원은 비즈니스 매칭과 상담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참가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프랑스 TPF1 산하 제작사 브레이코미트과 국내 기업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오른은 '뽀로로' 극장판의 유럽 배급 계약을 맺었고, 음지오는 '베리베리 법'의 공동제작에 합의하며 한-불 협업의 가능성을 넓혔다.

콘진원은 캐나다·뉴질랜드 공동관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 국내 기업 15개사와 현지 제작사들이 공동제작과 유통 전략 등을 논의하며 장기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파트너스 피칭' 공식 프로그램에서 프리프로덕션 단계 국내 애니메이션 5편을 글로벌 투자자 앞에 소개했다. 발표작 '크리피스', '아홉산술: 기생 혼', '엘', '배움의 어머니', '해설'은 행사 후 공동제작 논의와 후속 미팅 요청이 잇따랐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전문성 살린 9개 분야 280명 참여…9억8000만 원 투입

재취업·사회봉사 연계 재설계 지원…시민사회 기여 기대

광주시가 올해 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빛고을 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 50+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중장년 50+ 정책'의 하나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장년층이 지역 사회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생애 재설계형 일자리다. 이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 일자리 참여인원을 250명에서 280명으로 늘리고, 신규 사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일자리의 다양성을 높였다. 올해 사업에는 총 9개 분야에 9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분야는 50+문화시설 지원단, 운영

지원, 이음파트너, 꿀잼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서포터즈, 무

등산 재난안전 지원단, 놀블럭&책놀이 활

동 지원단, 사회서비스 안전지킴이, 빛고

을 출장조사, 찾아가는 원예활동사(신규)

등이다. 참여자는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

자리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광기정 시장은 "빛고을 50+일자리에 참



5 빛고을 50+일자리 사업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고을 50+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여하는 장년층들은 산업화, 민주화, IMF 등을 겪으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특근한 돈과 마음과 정신으로 무장한 어른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RISE센터, 직업계고-대학 연계 강화

광주시·교육청 등 간담회…취업 활성화 논의

광주테크노파크 부설 광주RISE센터는 최근 광주시,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지역대학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세

램, 대학 및 기업 탐방프로그램,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맞춰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직업계고 참석자들은 실제 진학 및 취업 지도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언을 공유하며 향후 지역 대학이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 간 정보 공유,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설계 등 실질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으며, 광주형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RISE센터는 앞으로 자체체, 교육 청·직업계고·대학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대학의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모델과 연계한 고교·대학 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RISE센터는 광주시로부터 내년 2월까지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RISE센터 관계자는 "RISE체계 안에서 고교-대학-지역기업 간 연계는 핵심 요소"라며 "교육과 취업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끊어야 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원자도 보험사기
공짜인 걸 모르는
나 한심여사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바꿔 보험금 청구한
성형해양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닌
위 조작군

보험으로 태낸 가족
사망보험금으로 흐믓한
임 은혜여인

보험료 이상 폭탄 맞고 쓰러진
선량한 보험가입자

신고전화 1332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최대 20억 원
적발 금액에 따라 지급

보험사기 반드시 잡하고 처벌은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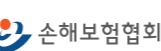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광주신세계 “빵지순례” 잡아라…로컬맛집 상생

온다방·따담·미리아드 등

유명 지역빵집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가 ‘빵지순례’의 메카로 뜨고 있다.

SNS에서 핫한 디저트부터 동네 유명한 빵집까지 숨은 카페들을 발굴해 백화점에서 ‘빵지순례’를 즐길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로컬 디저트 팝업을 통해 고객은 유명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지역 베이커리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반응이 좋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 ‘온다방’ 팝업스토어를 연다. 골목 숨은 맛집으로 유명한 온다방은 광주 용봉동과 충장로에 위치한 구읍과 자가 유명한 빵집이며 까눌레, 스콘, 쿠키, 마들렌 등을 판매한다. 대표상품인 까눌레를 바닐라, 초코, 밀착, 얼그레이 네가지 맛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띠띠’ 팝업스토

어에서는 싱싱한 과일로 만든 수제 디

저트인 ‘후르츠 산도’를 만나볼 수 있

다.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디저트는 제철

과일과 생크림으로 만든 샌드위치인

후르츠 산도와 구읍과자인 티그레 맛

집이다.

광주 동명동 웨이팅 맷집인 ‘미리아드 베이커리’의 팝업도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팝업을 진행해 흥행을 이어간다.

미리아드 베이커리는 프랑스 AOP 인증을 받은 버터를 사용해 만든 페스츄리 전문점으로, ‘만겹 크루아상’과 ‘빵스위스’가 유명하다. 빵스위스는 프랑스 전통 페스츄리로 결이 살아있는 페스츄리 반죽에 캐스터드 크림과 초콜릿 칩이 가득 들어간 특유의 풍미가 특징이다.

이처럼 광주신세계는 지역 소상공인

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의 디저트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열고 매장을 입점시키는 등 로컬 브랜드의 전국화를 돋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통 있는 베이커리 ‘소박 베이커리’, 전남 함평의 ‘기친205’다. 모두 로컬 브랜드로 백화점 입점 후 전국화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디저트 맷집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F&B 팝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농업기술원, 유자씨 활용 ‘오일세럼’ 출시

버려지는 부산물 기술 개발…특허 출원·기술이전 성과



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자사 브랜드 ‘립포 디아’ 누리집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향후 스토어팜, 주요 오픈마켓 입점 등 다양한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한 홍보·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미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제품은 소비자 체험단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러 차례 조성을 변경과 테스트를 거쳐 완성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이 지역 특화작물인 유자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해 주유아이슬과 유자씨 오일을 첨가한 ‘오일세럼’을 출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유자 가공공장에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년 3000t의 유자씨가 산업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 비용만도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버려지는 유자씨를 활용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 2023년 시제품을 제

작하고 2024년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이전받은 하이솔은 올해 4월